

# 민주 8월말 당권 경쟁 '막 올랐다'

### 친문 대표주자 일제히 출마의사 교통정리 최대 관건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 불가 분위기...秋 "연임 없다"

전당대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당내에서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데다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거머쥐는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20명 가까운 주자들이 자천 타천으로 후보군을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1기 지도부에서 상대적으로 몸을 낮춘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대표주자들이 일제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이들의 교통정리가 최대 관건이다.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인 7선의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4선의 김진표 의원, '문심'을 내세워 이번 재보선에서 원

내 진출에 성공한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차출설이 거론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친문 핵심으로 거론되는 박범계, 전철철 의원까지 내부 정리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선 벌써 나온다.

내부적으로 지방선거 영향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9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전당대회까지 준비작업이) 실무적으로 석 달 정도 필요해 실무차원에서 9월 전당대회 얘기를 했던 것은 맞다"며 "실무적 차원의 검토였지 고위 전략회의 등 최고위원회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대 연기에 따른 추미에 대표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일부 논란이 일자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진화에 나선 성격도 없지 않아 보인다.

예년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조직강화특위 설치 등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직강화특위는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 개편 작업을 통해 지역위원장 문제를 정리한다.

지역위원장 문제는 21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청와대 비서관 등의 거취와 연관돼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한 비서관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당적을 정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와대 근무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비서관들의 의중이 반영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뽑히는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이 대행을 세 워둔 지역구의 경우 이번엔 공모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강하게 퍼져있는 게 사실이다.

당 관계자는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 왔으나 지금 분위기로는 체제 연장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강화특위에서 지역위원장 공모로 결론을 내면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비서관들은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

일부 비서관은 이미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거취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각설과 맞물리면서 2기 청와대 구성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20명에 가까운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미에 대표의 당권 재도전 여부도 관심으로 떠올랐으나 추 대표는 연임에 선을 그었다.

# 김동철, 여야 대표에 "원구성 협상" 촉구

### 평화당 호남의원 영입엔 "그럴 일 결코 없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18일 여야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하반기 국회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를 가장 먼저 찾아가 협치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대표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긴 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평화와 민생, 경제에 대한 국회의 노력을 지켜볼 것 같다.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국민을 중심에 놓은 평화협치, 민생협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될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협치는 단순히 외달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선거도 끝난 만큼 각 당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하반기 원구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획기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중앙에 이어 지방정치까지 민주당이 선거에 취한 나머지 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고, 김 권한대행도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야권 공조"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예방에서도 '야권 공조' 이야기가 나왔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과거 국민의 당에 같이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과거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의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 영입 추진에 대해 "자기를 희망사항일 뿐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文 대통령, 하반기 외교일정 줄줄이 대기

### 김정은 세번째 만남 주목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시계'가 올해 하반기에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중대 관문을 돌파했지만 하반기 역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과 유엔총회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첫 외교 행보는 21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냉전체제 극복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김 위원장에게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한 바 있어, 문 대통령도 이 포럼에 참석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게 된다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동방경제포럼이 아니더라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에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남북 정상에 대한 논의는 올해 가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까지 포함한 남북미 3국의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거나, 9월 중순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후 남북 정상이나 남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

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 등은 논의된 바 없다. 이벤트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북미 대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균형위 '대학생 서포터즈' 공개 모집

### 주요행사 참여, 기념품·활동비 지급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희망자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균형위 홈페이지(www.balance.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균형위는 관심도, 지원동기, SNS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를 통

해 70여명을 선발하고 7월 1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는 약 7개 팀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8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등 주요 행사 참여, 혁신도시 등 현장 방문, 팀별 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서포터즈에게는 참가증과 기념품,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실비) 등이 지급되며, 우수활동팀에게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장과 상금, 소정의 상품도 수여된다.

# 국회 물관리연구회, 정책 토론회 개최

### 주승용 "통합 관리 정착 노력"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공동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 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승용 의원은 "20년 동안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각계의 이견으로 줄다리기가 해오다가, 이번 20대 국

회에서 마침내 정부 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며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물관리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통합 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

## 세정 공인 중개사무소

광주 광산구 송정동 871-35  
010-7574-9985 / Fax. 062-941-3006

- 상가**  
광주시광산구송정동대지101평 건평 160평 3층상가건물 투자적합 매매가▶9억1천만 조정안임
- 장성 나노단지 근린상가 2중현재 6차선점 ▶800평당 290만
- 과수원**  
나주시 영산동 ▶2530평당15만원 나주배 특구 투자처 확실
- 원룸**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80평 룠19실 2014년 준공, 시티 목욕탕 옆, ▶웅2억 보1억 월520만 ▶매가 9억3000만
- 주택**  
광산구 도산동 대지37평 2층 상아아파트 앞, 도로점, 점포가능 매매가 ▶2억4천
- 교회**  
동림동 삼익아파트 입구 5층 60평 매매가 ▶1억7000만원 송강기있음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면바다 조망양호, 건축허가필2층주택, 별장, 2차선점 조정가능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00평당 120만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시내 / 시외 / 물건 접수바랍니다

##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 급매 전문

## 급매물리스트

**[상가건물]**

- ▶ 나주 대로변 코너 대지 241㎡(128) 단층건물 점포9칸 급매3억6,000(보2,000월200)
- ▶ 동구 대인동 아파트2,300세대 진입로 최고요지 코너 대지341㎡(95)5층건평1,000㎡(300) 급매 18억(직영 월1,500만원이상 수익)
- ▶ 광주 북구 중흥동 코너 대지535㎡(162) 6층건1,350㎡(410) 급매17억5,000 (보1억5,000월2,300포함)월세입금 통장 확인가

**[사찰]**

- ▶ 전북 고창 대지8,000㎡(2,400) 문화재급 법당, 요사채등 건물 급매17억

**[토지]**

- ▶ 보성군 울어진 도로점 평지 관리지역 대지, 전 82,700㎡ (25,000평) 3.3㎡당 6만원
- ▶ 광산구 산정동 도로점 440㎡(133) 급매 2억
- ▶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취락지 도로점 1.5,20㎡(460) 3.3㎡당 30만원 총가 1억3,800만원
- ▶ 광주 남구 진월동 2차선포장도로 코너 토지10,000제곱 (3,300) 3.3당 120만원 총가 40억 가든, 고급주택, 병의원, 양돈원, 장례예식장최적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판매물 바로계약합니다※ (지역구관) 매수고객 다수 대기중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를 클릭하면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